

익산시,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 박차

익산시가 아동과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로 제1호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획득해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 구축과 함께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33개 부서 252개 아동 관련 사업예산 총 1,497억원(전체 예산 대비 11.3%)을 편성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 행사와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대응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공간 놀이시설 조성, 화석직업인 체험시설 리모델링, 어린이박물관 조성, 콘텐츠영상물 책, 흥

아동 관련 예산 1497억원 편성... 아동학대 대응 등 추진 여성 자립 지원 등 추진 '전국 제1호' 로서 입지다지기로

보물) 제작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구축을 마치고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 아동 2,261명을 대상으로 아동실태조사 실시, 100인 원탁토론회,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 평가를 실시해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 수립했다. 이어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아동 대변인인 옴부즈퍼슨(변호사 등 아동전문가) 4명을 위촉해 안전한 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의회도 운영되고 있다. 제8대 아동의원 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 제안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올해 첫 구성된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여성들의 안전이 보호되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해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올해는 총 28개 부서, 78개 사업이 추진되며 4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10억3,3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8억6,300만원,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사업 1억3,5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억1,600만원 등이다.

여성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여성안심파란치 안심비상벨을 32곳, 싱글여성 무인택배함을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총 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참여와 경제적 성장, 자립을 지원하며 기관·단체 등과 협업해 통합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여성친화도시 5대 정책 목표로 ▲평등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안전한 익산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분야를 설정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의 주도적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나아가 지역의 정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21개 청년단체와 코로나19 예방 간담회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내 21개 청년단체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소통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지역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청년정책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 방안과 실질적 정책반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청년단체 대표들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취합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 나서

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성산고봉지구를 지정해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성산고봉지구 일원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2월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역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문화재단 설립 '시동' | 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군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군산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군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과업목적, 검토용역 내용보고와 함께 관계자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를 책임연구자로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대학교, 시의회, 민간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연구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기관으로 재단의 역할, 조직, 인력, 예산 등의 구성·운영방안과 경제성 수

행방식의 적절성, 파급효과 검토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의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 문화예술 현황 분석과 재단의 역할 및 필요성, 비전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재단의 기본모델을 도출해 내는 계획이다.

또한 재단 설립 기초조사, 국내 지역 문화재단 사례 등에 대한 문헌·환경 분석과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초·중·장기 대상사업과 향후 5년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용역착수보고에 이은 토의시간에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상호 간 인적연결 기능 확대 방안과 함께

주민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소통 기능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에 기존 타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과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결과물의 도출과 군산 문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병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설립은 가장 먼저 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의 허부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재원과 문화정책 면에서 독립성을 갖춘 문화플랫폼 기능을 가진 차별화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소방서는 이달 14일부터 백신 접종이 완료될때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소방력 지원

익산소방서, 시민안전 확보 위해 구급차 1대·구급대원 3명 배치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14일부터 백신 접종이 완료될때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소방서는 백신접종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접종센터로 지정된 익산 실내체육관에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3명(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을 포함)을 배치했다.

배치된 직원들은 익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과 접종후 이상반응을 관찰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후 귀가 중 또는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외 시설 접종대상자의 긴급신고에 대비해 익산소방서에서는 코로나 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익산시민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백신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주세요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총력전'

전수조사 통한 선제대응·유증상자 검사 독려

군산시가 선제적 대응과 유증상자의 검사 독려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9일 백중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군산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서 집단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에서는 지난 1월 28명, 2월 15명, 3월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4월에만 19일 현재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군산 인근지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익산, 전주, 완주일부지역 등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유증상자 검사 독려로 추가확산을 예방했으며 소모임금지, 거리두기 조정, 코로나19 예방 접종, 방역을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

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가 필요하다.

백 소장은 "우리는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4차 대유행으로 가느냐, 안정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다시 유행이 커지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하는 등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안정세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고 시민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